

■ 들어가는 말.

1. 인생살이 범사(凡事)가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준비(準備)미리 필요를 갖추는 것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고 벤자민 디즈레일라는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준비하여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2. 다음 주일 4월 16일(주일)은 기독교의 최대 복음인 부활절 절기 주일입니다.

삼일의 성도들은 이 날을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준비, 준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준비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부활절 전 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설정하여 특별기도회 혹은 금식기도회 등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념하는 행사를 전통적으로 갖습니다. 과연 복음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주일간의 행적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과연 주님의 고난 주간 일주일간의 행적은 무엇이며,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니다.

(마 21:9, 마 21:12, 막 12:43, 막 14:8, 막 14:22-24, 눅 23:46, 눅 23:50-56, 마 28:5-6)

1. 첫째 날 (종려주일) →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마 21: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참고: 막 11:1-10 등)

이 말씀은 스가라서 9:9절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공의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 겸손히 나귀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 ◇목상 : 1. 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믿음과 용기를 보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 2. 오늘 주님께서 나와 나의 가장,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2. 둘째 날 (월요일) →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마 21: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참고: 막 11:15-19 등)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예배의 장소이며,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룩한 성전을 세속적 경제활동의 처소로 바꾸고,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 ◇목상 : 1.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 참으로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 2.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3. 셋째 날 (화요일) → 과부의 두 렙돈 교훈을 하셨습니다. (막 12: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한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참고: 눅 21:1-4)

예수님은 성전에서 연보개를 대하여 앉으셔서 사람들이 한금 넣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때가 마침 유월절이라 전국 각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또 많이 한금을 했습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개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희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과부의 한금을 높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과부의 적은 헌금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신앙의 핵심은 풍부한 양과 화려한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중심과 순수한 본질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 보십니다.

- ◇목상 :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어떤 것일까요?
- 2. 나의 신앙과 헌신이 외식적인지 참 마음인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4. 넷째 날 (수요일) → 한 여인의 헌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막 14:8)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 하였느니라』 (막 14:8)

베다니의 마리아는 향유 한 병 모두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 리온이나 되는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이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의 헌신을 봅니다.

- ◇목상 : 1. 나에게도 주님을 위하여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 2. 주님을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5. 다섯째 날 (목요일) → 최후의 만찬을 배푸셨습니다. (막 14:22-24)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참고: 마26:26-29)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후,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이 만찬은 성찬식(聖餐式)의 기원이 되었습니다.(고전11:23-26) 세상 죄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해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실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최후의 만찬을 읽거나 성찬예식을 대할 때마다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 ◇목상 : 1. 나는 은혜 입을 자려로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 2.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먹고 마심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6. 여섯째 날 (금요일) →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눅 23: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눅 23:46)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심문을 받으시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온 땅은 어둠이 임했고 성소의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은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은 47절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 ◇목상 : 1.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가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 2. 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는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7. 일곱째 날 (토요일) → 무덤 속에 장사 되었습니다. (막 15:46)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막 15:46)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로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자기를 위해 만들어 둔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제자였지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죽음과 무덤의 고통을 겪으십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죽음과 무덤의 고통까지 체휼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합니다.

- ◇목상 : 1.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는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 2.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과 무덤의 고통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있는가?

■ 마치는 말씀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까지 이르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엡 2:1)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복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은혜의 목적은 우리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엡 2:10) 즉,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사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고난주간행적과 그 의미를 깊이 상고함으로 주님의 고난의 목적을 실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아멘